

제15대 총장후보 추천선거

구성원 높은 참여 속 마무리

교수회, 흥기삼(250) · 조희영(125)
직원노조, 조희영(142) · 정병조(87)

제15대 총장후보 추천선거에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각각 약 90%, 80%의 투표율을 보이며 학내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약 88%가 참여한 가운데 흥기삼 후보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250표(51.4%)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고 조희영 후보가 125표(25.7%)를 얻어 2위로 결정됐다.

80%가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조희영 후보(142표, 47%)와 정병조 후보(87표, 28.8%)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령석 직원노조 지부장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적은 재단의 일방적 낙임을 막는 것"이라며 "교수회나 직원노조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누가 선임되더라도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수·직원이 사상 최초로 8~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총장직선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재단은 차기 총장 선출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차 전공결정 신청 오는 25일부터 5일간

1학년 재학생의 1차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5일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2002 장학금 지급결과 30% 7천3백 여명 혜택

2002학년도 장학금 지급결과 재학생의 30%에 해당하는 7천3백 여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힘으로 ... '여중생 사건'으로 기소된 미군 2명 모두 무죄평결을 받은 것에 대한 '살인미군 재판 무효 2차 청소년 행동의 날'이 지난 23일 옹산 전정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수시·정시합격생 특강 개설

2003학년도 1, 2학기 수시 합격자 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고전의 이해'이며 졸업학점 2학점이 인정된다.

부터 다음달 6일까지 본교 본관 2층 교양교육운영실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도서관, 다음달 9일부터 이전 한 달여간 대출중지 ... 반납기한 연장
신속 중앙도서관(이하 신속 중도의 준공식이 다음달 3일 진행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자료실 이전이 시작된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무산
신청자 467명 중구청 관할 지역서 투표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 신청결과 설치 가능 인원인 2천명 모집에 실패해 무산됐다.

'청년만해 강좌' 개최
권해효·신해철 등 유명인사 초청
'청년만해 강좌'가 오늘(2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보리수
아! 경주 동국대
참으로 신묘한 땅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있는 곳은... 학교 앞 송화산 중턱에는 신라 통일기에 대국 당을 물리쳤던 장군 김유신의 묘가 있고, 뒷산을 넘으면 서세동점의 시대 핏빛 울음을 울며 저항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동학의 발생지 용담정이 있으며, 정문 앞에서 여울져 흐르는 형산강 건너편에는 당나라 유학을 거부하고 삼장법사 현장을 농락했던 성사(聖師) 원효가 머물던 고찰(古刹) 분황사가 있다.

꿈을 위한 도전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시상: 인문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발전기금 060-700-0119

지면안내
4면 동약 정치민심 르포
5면 북한 경제변화와 국제협력
8면 문화정책, 새웃 입어라

제34대 총학생회 학자합의안 이행 점검

등책협 구성·법대이전 논의 '진행중'

불교병원 회계분리 등 비중있는 사안 남아 ... 지속적 논의 관건

올 한해 34대 총학생회(회장=주진안·국교4)는 총장실 접거 능성을 벌이며 학교측과 △불교병원 회계 △교육·복지 환경 △등록금 책정 △공간문제 등과 관련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총학생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현재 주요 합의사안의 이행 정도를 점검해본다.

▲**불교병원 관련**=최종합의의 도출 직전까지 학교측과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교비·병원회계를 분리하고 두 회계의 예·결산을 공개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총학생회가 올 초부터 제기했던 '불교병원에 교비 사용 의혹'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

회장은 "분리된 예·결산 공개를 통해 등록금이 병원건립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 합의안 이행 여부는 불교병원이 개원해 병원 운영에 대한 지출이 이뤄질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책정협의회**=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는다고 합의, 지난 31일 1차 준비모임을 진행해 10여 년 전부터 학생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1차 준비모임이 늦어짐에 따라 등책협 구성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에는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고 총학생회 구성원도 바뀌는 만큼 등

책협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교육·복지환경 예산 확보**=교육·복지환경에 대한 예산 10억을 따로 책정하는 합의안을 도출, 지난 여름방학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측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현재 1차 요구안은 학교측이 대부분 수용해 휴식공간 개선, 컴퓨터 증설 등 교육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나 10월 제출한 2차 요구안은 아직 이행되지 않아 실현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간문제**=등록관 지역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법대를 이전한다고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법대 학생회(회장=김문진·법4) 도사신관 점거 등을 통해

공간 문제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간재배치위원회(위원장=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34대 총학생회는 교비회계와 병원회계 분리, 등책협 구성 등 장기간 논의해야 하는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35대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아직까지 내년 합의안 이행을 요구할 주체가 없어 우려된다. 빠른 시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내년도 총학생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합의안 이행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현전무대

예산 등 행정지원 부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마련돼야

본교 입시홍보 현황

2003년 수험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면서 각 대학의 신입생 유치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본교 역시 입시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시전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설치하는 등 우수 학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1차 수시모집을 시행하면서 연말에 편중됐던 홍보를 1년동안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본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교 신입생홍보를 활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직원들은 인원과 예산 등에 대한 한원확충을 우선으로 꼽았다. 지원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홍보담당부서를 입학관리처의 기획, 관리, 홍보팀으로 구성한 반면 본교는 홍보실과 학생선발실이 분과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캠퍼스투어, 신문, 방송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능률과 전문성에서 타대학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인원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한 신입생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의 학생선발실을 확대, 개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학생들의 참여활성화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몇해 전까지 '재학생 모교 방문단'을 모집해 홍보를 시도했지만 재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모집조차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건국대 등 일부대학은 새로운 신입생홍보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건국대는 사이버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사이버 입시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수험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대의 경우 '총장배 교고생길거리 농구대회'를 열며 교고생들이 자연스럽게 캠퍼스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본교 신입생홍보가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적극적 투자와 재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홍보관련 부서 인원 충원과 재학생들의 참여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121@dongguk.edu

막판 뒤집기

○...계절학기 수강 신청 학생들이 갑작스런 폐강소식에 당황했다는데.

알아보니 몇몇 학생들이 수강료 납입기간 중 수강을 취소해 일부 강좌가 인원 미달로 취소된 것이라고.

수강취소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뒤늦게 결정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계절학기 수강과 취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속임수

○...본교 홈페이지에 암묵적인(?) 출입금지구역이 있어 학생들이 의아해 한다는데.

이유인즉 영문홈페이지, e-Class 등이 링크표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이 되지 않기에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실준비중'이라고 미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사이버 보물창고계열, 홈페이지에서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를 찾아라!"

이동주차장

○...비오는 날이면 등록관 앞이 주차장으로 변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는데.

알아보니 등록관을 이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학생들이 비를 덜 맞기 위해 등록관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건물을 출입할때 차 사이로 지나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등록관 앞 신 주차문화, 우선시 주차장소를 이전합니다!"

학생 VS 근로장학생

○...요즘 원흥관 FL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데.

이유인즉 실습실을 관리하는 근로장학생들이 뒤편의 관리실에서 잡담하는 소리가 강의실까지 들리는 것이라고.

이 때문에 실습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공강 시간에 리포트를 쓰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FL 실습실 특별 강의는 학습과 유화문화를 동시에(!)"

사회봉사 프로그램 공모 물품구입비 등 지원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참가봉사단이 학부(과)·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 법인·비정치적 단체를 대상으로 7명이상이 3개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전공관련 프로그램과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재료와 물품 구입비며, 심사기준은 △전공학문과의 연계성 △참여도 △파급효과성 등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실행한 학생은 △2003학년도 해외봉사단 파견시 우선 선발 △우수봉사자 장학금 지급 등 연계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지원신청서와 봉사활동 계획서를 참가봉사단에 제출하면 된다.

'English Essay Contest' 시상 최우수상에 주세리 양 선정

본교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가 주최한 '제11회 English Essay Contest' 수상식이 내일(26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총장실에서 진행된다.

본교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지난 14일 열린 콘테스트의 수상자는 △최우수상=주세리(영문2) △우수상=배은철(정보관리3), 최진혁(경협3) △타입상=김성철(사과대1)이다.

총여 '독립수첩' 제작 여학생 독립 위한 조언

총여학생회(회장=허고는·종문3)가 독립수첩을 제작해 배포한다.

여학생들의 독립을 위한 조언을 담은 독립수첩은 △직장여성 인터뷰 △여성의 눈으로 본 문화 △학내 여성 독립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관 등을 소개했다.

독립수첩은 오는 28일부터 여학생 휴게실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허고는 총여학생회장은 "독립수첩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완 초청 특별 강연회 오는 27일 원흥관에서

'백기완 선생 초청특별 강연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원흥관 E102에서 열린다. 한국기술환경경제대학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에서 '참된 지성과 그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귀의합니다 ... 지난 21일 오후 2시 중앙당에서 본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천 여명이 모인 가운데 '활동 수계 대법회'가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2003년도 1학기 수강신청

다음달 9일부터 5일간 진행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다음달 9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학내별 신청날짜를 살펴보면 △9월=1학년 △10월=2·3학년 △11·12·14일=전학년이며, 학내 컴퓨터실 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정식모집 접수 마지막 날인 13일 서버가 다운될 우려를 막기 위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3일간 학사지원실은 복학·재입학 신청을 받는다.

2003동연 사상 첫 경선

권준일·정혜정-박선희 조 출마 ... 29일 투표

2003년도 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등록 결과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다.

각 후보자와 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 갑=권준일(토목환경2, TIME)군, 공약=순수한 동아리 연합회의 역할 증대, 동연 사업에 학생들의 관심 유도, 새터 참여, 동아리 박람회 통해 신입생 유치 노력, 동연제 분과지원 위주로 진행, 동아리 특별지원금 공경 배분 △기호 을=정혜정(영문2, 맑스철학연구회)·박선희(교육2, 민중미학연구회), 공약=침체된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교육투쟁 통해 동아리 환경 및 복지 개선, 동연·동아리·동아리 성원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 마련·계급적 학생운동 복원·강화이다.

투표는 오는 29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각 동아리에서 대의원에 준하는 3명이 할 수 있다. 동연은 지난 4년동안 비대위체제로 운영됐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홈페이지 통해 발급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등에 사용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려면, 본교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서비스 '교육비 증명출력'에 접속하면 된다.

언어연구교육원 겨울학기 특강

기본 영어회화	시사영어 English Conversation with current Topics	Presentation skills	Me & My life 2 (중·고급)	Me & My life 1 (초급)	Writing & Speaking	Interview English	CBT TOEFL	독해를 위한 대안영어
강의 시간 10:00~11:30 12:30~2:00	12:30~2:00	10:00~12:30 (월·수·금)	10:00~11:30	10:00~11:30	12:30~2:00	10:00~11:30	12:00~3:30	1:00~2:30
정원	15인	10인	15인	15인	15인	15인	40인	40인
교수	초반교수 (Native Speaker)	Kerry/Tammy	Paul Sather	Ruth Liddle	David Green	Mary-Arm/Lezie Park	Modesto Tumaador	오금동 정효진
수강료	7만원 일반 9만원	8만원 일반 9만원	8만원 일반 9만원	7만5천원 일반 9만원	7만5천원 일반 9만원	9만원 일반 10만원	8만원 일반 9만원	7만원 일반 8만원
개설 여부	1차 2차	○ ○	○ ○	○ ○	○ ○	○ ○	○ ○	○ ○
강의 기간	1차 : 2002년 12월 9일(월) - 2003년 1월 3일(금) (4주) 2차 : 2003년 1월 27일(월) - 2003년 2월 20일(목) (4주) ★ 월 - 목 90분 강의 ★ (주)트루잉글리쉬 토익 : 2003. 1. 6 개강(문의:02-3443-6053) 주재원 AFKN: 매일 개강/매월 말 공개강의(문의:031-904-5981)							
문의 및 접수	* 접수는 개강 2주전부터 받습니다(1차 접수기간 : 11월 25일-12월 6일) * 환불규정 : 등록 취소 시 개강 3일 동안만 80% 환불됩니다. 개강 후 일주일간 다음 차수로 1회 연기 가능. 이후, 기타 다른 이유(예: 한반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을 맞출 수 없다 등)로 환불 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학관 1층) 전화:2260·3470/1 팩스: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 ▶ 특강 수강 시 무료 웹토의 기회
-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언어연구교육원

2002학년도 1차 전공결정 시행

1. 신청대상 : 가. 2002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2. 일정 :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1학년 재학생 : 2002. 11. 25(월) ~ 11. 29(금)
-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2. 12. 9(월) ~ 12. 11(수) (1차 복학생기)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3. 2. 24(월) ~ 2. 26(수) (2차 복학생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3. 2. 14(금) 한 *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3. 2. 28(금) 한

대 학	전공 신청 자격	비 고
불 교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③ 대학지원공통과목 3과목 이수	99년까지의 입학자는 ①②만 요건
사회과학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이상 취득	
경영	① 기초공통과목 2과목 이수 ② 기초통과과목 3과목중 2과목 이수 ③ 평점평균 2.5이상 ④ 30학점 이상 취득	99년까지의 입학자는 ③④만 요건

* 문과대학, 이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은 자격제한 없음.

4. 대학별 전공결정 기회의기(가) 가.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 1회(1학년 2학기말)
나.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 2회(1학년 2학기말, 2학년 1학기말)
5. 배정기준 : 1학년 1·2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
6.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단, 2차 복학생의 성적이 1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복학생)의 cut-line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발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7.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다. 제1,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8.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1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 홈페이지)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 (1)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과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2)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과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 중에서 1개의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교 무 처

2003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시행

1. 일반휴학 가. 접수일자 : 12. 12(목) ~ 16(월), 2003. 3. 3(월) ~ 5(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점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 가능),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재적됨
2. 복학 가. 접수일자 : 12. 9(월) ~ 11(수), 2003. 2. 24(월) ~ 26(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3년 3월말이전 징역이전 징역예정자.
다. 2003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대학 교과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 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재입학 가. 접수일자 : 12. 9(월) ~ 11(수), 2003. 2. 24(월) ~ 26(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 12. 16(월) ~ 18(수), 2003. 3. 3(월) ~ 5(수)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며,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될을 유의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으로 상담 바랍니다.

교 무 처



- ① 교육분야
- ② 연구분야
- ③ 경영분야
- ④ 재단과의 관계·학내민주화
- ⑤ 간담회-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송석구 총장 8년 평가와 과제

학내민주화 통한 학교발전 이룩해야

본사는 지난 22일 본사회의실에서 교수회·직원노조·대학원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대표를 초청해 이번 총장후보추천선거를 평가하고 차기 총장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자 송일호(경제학) 교수회 총무 김영훈(발전기금팀) 직원노조 부지부장 최경태(국문과 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장 권한대형 양희창(반도체4) 학부 부총학생회장



김영훈 기자

사회자=이번 제15대 총장후보 추천선거에 대해 평가한다면.

송일호(이하 송)=이번 선거는 학내주체들이 선거과정을 논의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학내민주화가 진일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 2차 투표 모두 90%의 투표율을 보여준 교수들에게 감사한다.

김영훈(이하 김)=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가 실시되고 98년을 제외하고 계속 직선제가 관철됐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후보자 유세 등 학내주체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좌계 보다 완벽한 총장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송일호 교수회 총무

“차기 총장은 구성원간 감정의 골 치유해야”

최경태(이하 최)=학내 제주체간 합의를 통해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단독 질의·응답으로 변경되는 등 학내민주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양희창(이하 양)=제주체가 ‘함께’ 선거를 진행한다든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상호간의 배려와 이해가 많이 삭제돼 아쉽다. 후보자 토론회 등 유세를 통해 구성원의 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었는데 개별질의·응답에 그쳐 아쉽다.

송=지난 98년에 비해 단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세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장선거가 끝나면 노조와 차기 총장선거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15대 총장선거 평가

사회자=선거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총장선거에 대한 합의된 대원칙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송=선거를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고 직원노조의 선거 결과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이미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직원노조에 의한 총장후보 선거 및 추천은 직원노조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재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학내 제주체가 동일한 자격과 동일

한 형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기 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입후보를 공동으로 하고 토론회를 같이 한 것이다.

선거결과에 대한 직원노조의 입장은 교수회 결정을 존중하며 각 주체가 재단에 후보자 추천한 것은 독자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재단이 교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존중하며 역으로도 그렇다고 본다.

양=이번 총장선거의 대원칙은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직선제였다. 이에 대해 학내 주체간 방법과 과정을 조율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가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아쉽다.

선거 결과는 독자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8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토론회 등 선거 준비과정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과정상 민주화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송=물론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일지라도 선거기간동안 직원노조와 자주 만나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양=앞으로 총장선거에서 의견권과 후보자 검증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송·김=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주적 절차·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최=교수·직원과 ‘학내 민주’에 대해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발전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학생 투표권과 관련한 부분은 남겨진 과제다. 학생참여가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학내에서 집행되는 사안들이 학생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훈 직원노조 부지부장

“총장선거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해 민주적 절차 강구할 것”

송=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1인 1표가 진정한 학내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총장선거에서도 직접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유세과정을 통해 공약을 검증하는 것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총장직선제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총장추천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주체들이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인정한다.

양=교수와 학생이 1대1의 지분을 갖고

선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일정 정도 동감한다. 학생이 요구하는 방식은 학생대표자반이라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학생과 교수가 1대1의 지분을 갖는 것은 당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생의 의견권에 대해 고민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최=앞으로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학생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앞으로 등록금 투쟁 등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약 실현가능성

사회자=이번 선거기간 동안 본사는 ‘총장선거를 정책중심으로’라는 캠페인을 내걸고 후보자들 정책을 분석하고 후보자 유세를 지상중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위한 공약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들의 공약 실현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대선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왜하면 공약이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 오히려 투표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들 정책 차별성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김=후보자들이 공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부분이 독선을 배제하고 분권화·자율화를 하겠다고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아쉽다.

또한 불교병원개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재정 등 본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교수 책임시간 감면 등 인위적 정책도 있었던 것 같다.

최=대학원과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었던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능력 결미 뿐만 아니라 지성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없어 아쉬웠다.

양=공약은 핵심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 그 중 불교병원과 분교 특성화 방안은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에도 공약의 경중없이 나열식이 많았다.

차기 총장의 상

사회자=차기총장의 상, 자질, 역할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면.

송=지난 99년 3월 송총장이 연임되고 불교병원 개원문제 등으로 학내분규가 일어났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구성원간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차기총장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내 구성원들 감정의 골을 치유해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연구인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을 설득해 불교병원을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명확한 자료제시 등 확실한 준비를 통해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김=행정부분에서의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중요하다. 현재 본교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제도가 부실하고 직원들이 역할 수행에 혼란을 느끼는 등 시스템이

송석구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된다. 지난 94년 교수·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단에 추천된 송 총장은 98년 재단의 연임결정을 거쳐 8년 동안 불교병원의 건립추진, 학부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본사는 총 5회에 걸쳐 송 총장 재임 8년을 분야별로 평가해 차기 총장에게 남겨진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총장은 전략적 정책과 대외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관련 부서가 책임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연구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육공간의 외적인 팽창이 많이 되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기 총장은 교원회복, 연구실 마련, 장학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최경태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교육공간 외적 팽창보다 연구지원 우선돼야”

양=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독단·독선을 불식시키고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교육개발, 재·종단의 압력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학내 처지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소신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자=불교병원 개원과 관련해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미흡했다. 불교병원 개원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송=학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세과정에서 후보자들 또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하루빨리 차기 총장이 결정돼 대책위원회 등 학내구성원 대표가 참여해 실질적으로 개원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의 공유되고 구성원들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김=재단 내에 구성된 개인준비위원회가 재원마련 등 개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성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양=현재 병원개원에 대해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차기총장이 선출되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학내 구성원들에게 시인·사과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학내민주화 실현 방안

사회자=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내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송=총장이 도덕적 철학을 갖고 학내민

사설

총장선거와 남겨진 과제

지난 20일, 학내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졌다. 어떤 이가 후보로 선출되었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민주적 절차로 치러진 이번 선거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투표에 참여했던 교수, 직원의 절대 없는 높은 투표율은 차기 총장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총장후보선출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단합된 의지가 나타난 데에는 98년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낙점사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학내 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년에 비해 앞당겨진 총장선거 일정 역시 학기 중에 선거를 치름으로써 학내 제주체들의 직·간접적 참여를 높이고 공론화의 여지를 남겨놓고자 함이었다. 또한 각 주체들의 자체적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선거일정과 합동유세 및 토론회는 차기 총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현재 본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올해도 끝내 학내 구성원의 대다수인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나, 합동유세와 토론회 과정에서 ‘진행 방식’에 있어 사전 논의가 충분치 못한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과 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총장선거과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제 재단 이사회의 선택만이 남았다. 사립학교법 상 총장선출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단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만이 동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재단 이사회는 진정 동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학내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가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적 총장후보선출 과정을 도외시하지 않고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재단 이사회의 신중한 결정이 더욱 중요하리겠다.

학내 구성원들 또한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는 일단락 되었으나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과정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차기 총장선출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관, 부주관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057

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단과대학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번 유세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구성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양희창 학부 부총학생회장

“학내구성원 정기적인 논의자리 마련해 신뢰 회복해야”

최=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공식적인 자리가 없어 아쉽다.

현재 대학원의 경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각 사안이 산발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구성원의 논의자리가 마련돼야 학내 분규를 방지하고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양=일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등록금정책협의회 등 기구·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공문 등 서면형태로 의견을 전달하고 면담의 형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는 방식에 그친다.

앞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자리가 마련되어 다양한 생각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자=분교가 특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면.

송=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학과의 존재여부를 논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 해도 기초학문분야 중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하듯 특성화시키면 안된다.

김=타 대학과 구분되는 학교의 색채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특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이번 간담회는 학내 현안에 대해 각 주체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내 주체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

사회=김도영 기자 정리=조슬기 기자

동약로

소통불능



“투표율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선된 거지?” “우리 단과대만 시행세칙이 바뀌었다.”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된 지난주, 일부 경영대 학생들은 35대 경영대 학생회 당선공고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무산된 것과 달리 경영대는 45.17%의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바뀐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결과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안인데 왜 나는 몰랐던 거지?”

선거가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영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극소수만 투표에 참여해도 그 결과를 인정하는 시행세칙이 크게 위협하다는 지적이다.

경영대가 투표율을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시행 세칙안을 도입한 것은 지난 4월, 경영대 대의원회에서 ‘투표율 제한을 없애면 오히려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다’며 제안된 개정안은 그 달 열린 학생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학생회가 알아서 고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중요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경영대생 대부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작 학생총회 자리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통과됐다”는 학생회 측의 설명이 오히려 공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학생회만을 탓하는 것도 무리다. 경영대의 한 학생은 “우리가 당시에 컷등으로 흘러들은 책임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세칙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영대 학생회는 새로운 시행세칙에 관한 간담회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바뀐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동약정치민심 르포

후보단일화 ‘이목집중’ 대다수 정치 무관심은 여전

대통령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뒤늦게 진행됨에 따라 선거지형이 앞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생들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난주 본교 서울캠퍼스의 학생들을 통해 본교생이 바라보는 후보단일화와 대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지후보를 결정한 이들이 각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도 함께 들어본다.

“그러니까 ‘커밍아웃’ 한 번 해보라구. 대체 누굴 지지하는 거야?”

지난 21일 동국관 1층 민법학회실. 네 명의 학생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커밍아웃 논쟁이 벌어졌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밝히는 이른바 ‘정치적 커밍아웃’ 때문이다.

커밍아웃 결과 네 명의 학생이 지지하는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로 각각 달랐다. 학생들이 각자 지지후보를 변호하는 말을 주고 받다보니 마치 합동 토론회라도 열린 듯 하다. 안혜성(법3) 양은 “대선이 다가오자 이 같은 즉석토론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했다.

‘노·정 단일화’ 최대이슈

토론이 가장 활발한 곳은 사회과학계열 학과가 밀집된 동국관이다. 모의국회나 세미나부터 사회운동 소모임,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사회당학생위원회 등 단체별 정기적인 토론회까지 대선 관련 논의가 비교적 자주 이루어진다. 요즘은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최대의 이슈다.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노무현 후보가 될 거예요.” 스스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정 모양. 최근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정 후보측이 협상에 자주 제동을 걸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후보단일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개 비슷해 보인다. 박 모군은 “정책이 다른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국민경선 출신 후보를 이렇게 전락시킨 것은 민주당내 일부 후단협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신 비판적 지지론

그러나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표’를 합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학교 한 쪽에서는 노무현과 권영길 후보를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더 많다. 개혁적인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이 비슷하고 민주화운동을 펼친 전력 때문에 두 후보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성향이 비슷한 것이다. 이에 ‘반이회창 연대’ 명분에 힘입어 ‘별 사람 중에서 개혁적인 사람을 뽑겠다’는 비판적 지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국관 한 쪽의 정치경제학연구학회 김현진(전자공학3)군은 단호하다.

“저희 중에 비판적 지지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소모임 안에 노무현을 지지하는 학생은 없느냐는 물음에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지난 97년 대학가가 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기울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사과대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이

미 진보정당 단일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어 97년 때처럼 기성정치인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신’비판적 지지론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과대가 자리한 원흥관이나 이과대가 위치한 명진관에 가면 이회창 후보나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을 비교적 많이 만날 수 있다. 박 모(화학공학4)군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실망했다”며 이회창 후보의 대북 정책에 주목했지만 “어차피 될 사람 밀어주자”며 이회창 대세론 때문에 이회창을 지지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부재자투표소’ 운동 실패이유는

한편 그동안 학내 외 관심 속에 진행된 부재자 투표소 신청이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최종 신청인원은 467명. 투표소 설치 가능인원인 2천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같은 시각 연세대 및 7개 대학에서 2천명이 신청한 것과 대비된다.

학생들은 대부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앙도서관에서 만난 김 군은 “우리가 얼마나 학·내외 정치에 무관심한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어떤 후보를 왜 지지하는 지 밝히기” 정치적 커밍아웃은 어쩌면 무관심과 오해의 벽을 깨뜨릴 좋은 방법인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도 ‘커밍아웃’할 입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이 다가온다. 이제 감춰두었던 마음을 투표용지앞에서라도 꺼내 보여야 할 때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D-24, 나는 ○후보로 결심했다



이회석(통계4)

-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 이 후보의 지도력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달리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후보의 당장 야력과 포용력이 뛰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법관생활을 했으므로 부패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아들 병역문제도 비난을 받고 있지만 솔직히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회창 후보 뛰어난 지도력과 포용력

- 이 후보는 개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 이 후보의 정책이 보수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개혁적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햇볕정책 재검토주장은 북한을 지원하기 전에 의한의 빈곤층을 먼저 지원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뿐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후보

서민위한 정책기대

-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 노 후보가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이·정 후보와 달리 서민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민의 고통을 더욱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과 교류의 폭을 넓혀줬다는 그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어 지역감을 해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상용(일문4)

- 진보진영에서는 노 후보의 정책도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데. = 권 후보의 정책이 더 진보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권 후보의 정책은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노 후보의 중도적인 개혁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전홍석(경영3)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 정 후보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신선하다. 적어도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요구를 겸손하게 수용하려는 자세 역시 권위적인 다수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그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외교능력이 뛰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후보 겸손함, 기성정치인과 달라

다. 히딩크 감독 초빙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 후보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많이 낮은 편이지만 단일후보가 된다면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

권영길 후보

개혁을 당당히 이끌 후보

-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 권 후보의 개혁적인 정책을 보고 지지하게 됐다. 그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 주5일 근무제 즉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부유세 신설도 부의 공평한 분배에 한 몫 할 수 있는 공약이다. 또한 권 후보만이 미국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중생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부시의 사과를 요구한 것도 권 후보다.



조명순(간간 경제3)

- 비판적 지지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권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에게 투표하는 것이 옳다. 한 표, 한 표를 모아 진보정당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제1회 동국청우수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1회 동국청우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으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상대상 : 동국인(동문, 교수, 직원, 학생)
2. 구비서류
1) 추천서(지정양식) 1부
2) 공직조서(지정양식) 1부
3) 이력서 1부
4) 사진(여권용) 5장
5) 공직 증빙자료 1부

- 3. 접수마감 : 2002년 12월12일까지
4. 시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5. 시상일 : 2002년 12월 23일 오후 6:30 엠버서더 호텔2층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 기타 자세한 것은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327호실
전화 016-896-3916(윤천영) / 2260-3025(신관호)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회장 류 주 형

동국대학교 여학생 총동창회 소집

다음과 같이 여학생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02년 11월 27일(수) 오전 11:30~
2. 장소 : 엠버서더 호텔 식당
3. 회의안건 :
1) 회칙 개정
2) 부회장단 및 임원 선임
3) 사업계획 채택
4. 보고사항 :
1) 재정 상황 보고
2) 여학생회 사무실 확보
3) 기타사항

동국대학교 여학생 총동창회 회장 김 영 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상자 : 2003년 2월 졸업예정인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
2. 자격
(1)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평생교육과정 이수학점이 20학점이상(평생교육실습 포함)인 자로서,

- 평균성적이 80점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2. 12. 2(월) ~ 12. 6(금)
4.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호적초본 1통, 성적증명서 1통
5.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2260-3380, 3751)

서울캠 사범대학

북한학연구소 제3회 한·중 국제학술회의

대외관계 회복 · 시행착오 해결로 진정한 '실리 사회주의' 이뤄내야

이북의 개혁은 경제위기 극복 위한 대책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화'

VS

이북의 경제정책 변화는 시장경제로 가는 역사적 과정의 시작

"90년대 후반 이북의 상황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육체적 고통의 시기였다면, 현재는 정신적 고통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1일 열렸던 제3회 한·중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 길림대 임명 교수는 현 이북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물가 조정, 임금 인상 등을 실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 특구 설치 등 일련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핵개발 문제로 인해 경색된 북·미 관계는 이북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경제 변화나 개방조치 등이 지면으로 확대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린 것 같다"는 길림대 서문길 교수의 말에서 대내적으로 이북 주민들이 겪는 혼란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교 북한학연구소와 길림대 동북아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경제전략 변화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발전과 노력방안(서문길 교수)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박순성 교수) △북한의 외교전략이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길림대 파전군 교수) △북한의 새 발전전략과 핵문제(고유환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북이 지난 7월 1일 단행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하도록 한 가격조정과 '일한 만큼, 번 것 만큼' 분

배하도록 한 임금 상승, 배급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이후 실행된 신의주 특구와 함께 북한의 변화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고유환(북한학) 교수는 신의주 특구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한 특별 구역으로 해외자본 유치의 장구 역할뿐 아니라 서방과의 경제협력 및 중국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과는 달리 이북의 경우는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이뤄져 내부 변화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북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의 개선'이라고 보는 시각과 '부분개혁적 사회주의경제'라는 시각, 그리고 '시장경제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입장이 그렇다. 이에 대해 박순성 교수는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개선조치의 내용으로 볼 때, 이북의 경제정책 변화는 시장경제로 가는 역사적 과정의 시작"이라며 세 번째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북의 전면 개혁·개방과 대외관계의 전면 개선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 역시 "이북은 '경제개혁'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과 같다. 호랑이가 달리게 되면 다시 내릴 수 없



지난 21일 북한학연구소가 '북한의 경제전략 변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임기중 교수의 기사문학이야기 (5)



서민가사와 새로운 생각하기

조선왕조 5백년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두 사건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 전쟁은 아름답게 포장된 인간의 욕심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벗겨낸다. 전쟁은 인간의 가려진 곳을 모두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전쟁은 위선과 진심을 노출시키고 허상과 실상을 들추어낸다.

따라서 앞의 두 전란을 통해서 조선왕조 서민들은 지배계급인 양반사대부들의 진면목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체험적으로 직시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양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인 서민들 사이에 철옹성처럼 굳게 치진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장벽이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양반 사대부들의 의식의 위상과 언행의 위상이 서민의 눈에 모두 벌거벗은 실상으로 잡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먼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생각하기의 변화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 그러한 생각이 새로운 서민식으로 자리잡아 나 타나는 시기가 17세기다. 서민가사의 출현도 이와 때를 같이 했다.

서민가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판정신의 대두다. '갑민가'나 '합강정가' 등에 보이는 비판정신이 그러한 것이다. 그들은 양반 관료의 수탈과 그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지배계급의 가혹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서민가사로 써낸다. 그리고 '우부가'와 '용부가' 등에 보이는 것처럼 서민가사로 유가의 도덕적 허구성을 야유적으로 파헤쳐 비판한다. '개풍'이나 '공생원' '평생원'이나 '행덕어'를 등장시켜 그들의 비행을 야유하는 것이 당시의 서민가사다. 그들은 만사만 투전질을 일삼고, 어진 사람을 미워한다. 그들은 항상 남의 비행을 들추는데 앞장서고 끼리끼리는 잘 지내지만 일가친척과는 불화를 한다. 기존의 유가적 도덕관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새로운 실용적 가치체계의 확립을 주장한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let@dongguk.edu

21세기 지식인 사전

환경운동가 페트라 켈리(Petra Kelly)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녹색'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곤 했던 '녹색 잔다르크'. 반핵·환경운동에 힘쓴 평화주의자인 동시에 독일 녹색당 창당을 이끈 정치가, 페트라 켈리(Petra Kelly · 1947~1992). 1947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그녀는 58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인종차별, 냉전시대의 쿠바, 구소련의 무력 앞에 무너진 '프라하의 봄'을 목격한다.

이후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현실정치를 배운 켈리는 독일로 돌아와 유럽공동체, 환경보호전국연합 등에서 활동했다. 79년에는 환경, 인권, 평화를 기치로 내걸며 '정당반대당'을 표방한 녹색당을 창립,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83년 독일 연방의회로 진출한 그녀는 핵미사일 반대와 동독 인권투쟁 지원, 독일 통일에 기여하기도 했다.

92년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페트라 켈리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끊이지 않았고,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평화운동의 산 증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를 증명해 주듯 '페트라 켈리 평화상'이 제정돼 올해 3회 째로 접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페트라 켈리,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라는 평전이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자들은 항상 비판 받는 기존 정권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하며 지지를 구하지만 당선된 후보 역시 다음 선거철이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여일 남은 이번 대선에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기존 정치권과는 정말로 '다름', 이른바 대안세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논의자리가 지난 14일 정치외교학과 14번째 '대동민국 모의국회'에서 마련됐다. '천상 위의 난상토론, 대안세력은 한국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이번 모의국회는 박정희, 장준하, 전태일 등 과거 정치인물들이 저승에서 벌이는 토론회와 초 등학교 반장선거를 무대로 설정, 극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죽은 정치인이 산 정치를 논하다'를 테마로 한 1막은 현 정권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전태일 역의 최경숙(사과대1) 양은 기득권 중심의 현 정세를 타이타닉 호에 비유하며 "소수 상류층의 생존을 위해 다수에

게 희생을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봉암 역의 이승열(정의2) 군은 "현 정권은 기득권을 위해 초기 개혁성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막에서 제기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초 등학생들의 반장선거에 빗댄 '아이들, 어른들을 따라하다'의 2막에서는 담임선생님 '조중동'과 4명의 반장후보자들이 등장해 극을 이끌었다. 보수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수구,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노개혁, 경제력을 바탕으로 출마한 정재별, 진보성향을 지닌 권사회 등 현 대선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모사한 각 후보들의 언행을 통해 대선 후보자들을 풍자했다. 또한 이수구를 옹호하는 담임선생님 조중동을 통해 실제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 3막은 '죽은 정치인이 산 정치의 대안을 논하다'라는 테마로 대안세력의 필요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일반 대중들의 시각으로 현 사회문제를 분명히 인식할



bluemt@dongguk.edu



수 있는 사회운동세력, 진보정당 등 대안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대안세력이 선거의 벽을 넘어 집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수 언론의 왜곡된 보도나 낮은 지지율 등은 대안세력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때문에 대안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언론에 대한 '감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정치의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차>
bluemt@dongguk.edu

이처럼 순수한 우리말과 조작하지 않은 보통 언어를 과감하게 시어로 선택하여 투박하면서 명료한 의미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서민가사다. 시어의 본질이 함축미에 있다는 전통적인 시론에 도전하는 시 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시 쓰기 방법이 사실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인들의 시 쓰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것이 서민가사다.

소나기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한다?(여중생 장갑차 피고 무죄 판결)



△짜고치는 고스톱! △정부가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면서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난 9.11 때 왜 세계가 자신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미국이 했다는데... 이라니까 싫어하는거야! △관제병은 몰라도...운전병까지 무죄 판결이 나다니 진짜 미국 타도를 외쳐야 한다. △나도 미국이 싫어. 그렇지만 재판권 하나 못 가져오는 정치인들이 더 싫어...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도 헐리웃영화를 보고 맥도널드에서 저녁을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겁니까?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정의인가? △전 국민이 나서서 해결 봐야 할 것이다. △나네 재판 항상 그런 식이야!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을 그들은 '개미 두 마리를 죽였다'고 말했다. 너희들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그만 구경하라! 성년 민중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 군인들보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더 황당하다. 시위하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내리쳐 머리에서 피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났다.

△역시 미국다곤 결과다...놀랄 것도 없잖아. 예상했던 결과 아닌가... △언제부터 공개재판이 문 닫고 하는 밑실재판으로 변했나.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힘을 키우자. 떳떳한 대통령 뽑아서 미국을 심판하자! 젊음이여 투표소로. △당연한 결과다. 배심원이 미군이지 않잖나. △힘있는 국가의 아픔이다. △운전병 마크와 선탄병 니노의 가증스런 행동. 이젠 잊고 싶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물건너 갔구만. △힘있는 자의 세상. 미군이 사는 한국땅(?) △미국인에게 도덕관념은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경찰국가가 이런 것인가? △얼어버려!!

얼마 전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에서 여자 후손도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로 해서 화제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남성만이 족보에 오른다는 전통을 깬 것이며, 남녀평등 의식이 보편화 된 것의 반영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과연 족보에 여성 후손을 올리는 것은 남녀평등 의식이 보편화되어 나타난 경향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은 오직 남성만을 족보에 올리는 것이었을까 궁금하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족보에는 아들뿐 아니라 딸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아들을 먼저 쓰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다. 딸이 결혼을 하면, 사위의 이름을 기재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도 족보에 기재했다. 이러한 방식은 17, 8세기로 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지만 딸과 사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여전히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의 족보는 단순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직계 혈통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까지 담은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족보에 아들만을 기재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전통과 거리가 멀었다. 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후손까지 기재하는 것이 우리 전



논단

정지영 역사학 박사

‘성’ 없는 호적

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 가운데 50% 정도는 성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7세기의 호적대장을 보면 친인뿐 아니라 평민들도 성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가 되면서 평민들은 점차 성을 쓰게 되었지만 친인들은 여전히 성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 모두 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성씨 및 족보가 누구에게 왜 필요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양반들이 족보와 성을 쓴 것은 가계와 혈연의식을 통해 자손에게 재산과 신분적 지위를 상속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상속할 재산과 지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족보와 성씨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성씨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족보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족보는 우리 모두의 전통이 아니라 단지 조선 양반의 전통일 뿐이다.

에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

특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직원체용과 직원의 복리후생까지 현실적인 부분도 잘 다루주겠다.

강의실에서만 접해오던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접해 볼으로써 이론이 한 걸음 더 내게 다가오는 듯 했다.

그리고 짧게나마 내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었다. 외식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자주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연희 (관광대 호텔경영2)

‘배우는 기쁨’ 새롭게 느꼈던 외식업체 실습

내가 소속된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호텔투어를 다녀온다든지 외식업체, 즉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큰 규모의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실습을 해오고 있다. 강의가 끝난 지난 금요일 오후 ‘OO 스테이크’라는 외식업체를 간다기에 먹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 쿨가 솔직한 소식이였다. 전공 결정 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해보는 터라 기대가 더욱 컸다.

OO 스테이크 외식업체에 도착해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맛보았다. 하지만 나는 호주풍이 물씬 풍긴다는 그곳에서 처음 먹어보는 호주 음식 특유의 향신료에 고생스럽게 씹어먹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양념에 겨겨운 향이 풍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부를 많이 집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되고 말았다. 식사 후 점장님은 이 외식업체가 처음

소리바다 논쟁을 음반시장 발전의 계기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동안 소리바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다. 그 중 음반의 무단복제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주장은 “우선 MP3로 한 번 들어보고 좋으면 산다”는 것이다. 그럼 TV나 라디오는 괜히 있는 것인가? 음악을 미리 들어보고 테스트 해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솔직히 말해서 MP3가 얼마나 편한데 누가 MP3를 쓰지 CD를 사겠는가? MP3가 CD 음질을 따라오지 못하므로 CD를 산다는 건 일부의 ‘선택받은 귀’를 가진 사람

이나 하는 소리다. 이 음반에서 몇 번 트랙을 저 음반에서 몇 번 트랙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들을 수 있는 MP3가 사실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도 음악을 우선 들어보고 CD를 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럼 난 소리바다의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나 역시 소리바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소리바다라는 것이 없었던 그 시절 어떤 가수가 음반을 냈을 때 무턱대고 샀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노래는 타이틀뿐이고 나머지 곡들은 부실한 앨범은 음반을

사길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음반시장의 지금 양상이 바뀌었으면 한다.

지금의 역지로 14곡씩 엄청나게 눌러 담은 앨범을 계속 내고 사길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곡들만 딱 골라 담은 싱글 앨범의 형식을 원하는 것이다. 이왕 일본은 이미 싱글 앨범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들었다.

사회적 쟁점이 부딪히면 항상 그렇듯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음반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음반협회와 노래를 듣는 사람들 양쪽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김민규 (사과대1)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심층적 분석 미흡해

학생회 선거가 끝난 후 동대신문은 총학생회의 투표를 미달로 인해 내년 학생회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왜 총학생회 투표율이 50%미만에 그쳤는가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단순히 학생들의 관심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실제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 란에는 물

론 일반적인 비방수준의 글도 있었지만 선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학생회의 ‘정치성’이 결코 이번 선거와 분리될 수 없는 데도 이러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를 미달로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구조적인 분석없이 학생들의 ‘무관심’과 ‘편지결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송희문 (사과대 사회3)

선거에 편중된 보도

요즘은 선거의 뜨거운 열기가 한층 차가워진 가을바람을 대위주고 있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몰려 있음에 비례하여 요즘 대학 내에서도 빼어난 선거바람으로 학생들의 관심사도 대선을 포함한 교내의 각종 회장 출마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신문이 학생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여 정치권이 선거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

른다. 하지만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본다면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1면에서 시작해서 보도, 사설, 특집, 여론 및 심지어는 문화면에서도 대선 및 각종 선거에 관련된 기사를 실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흐름에 맞추어 언론매체와 매스 미디어가 조율이 되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한 집단 내 의식을 대변하는 언론사에서는 좀 더 중심을 잡고 사교의 다양성 및 폭넓게 알 권리를 가져다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제병환 (자연대 정통4)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우리 필수~ 이판사판 패장된 것 축하한다. -불대 02 △국제통상 조성희의 IG화제 최종합격 축하합니다. -국제통상 95일동 △북한학과 최홍규와 한국외국어대학 독일어과 나혜성 진심으로 축하해요. -박 박사 △희진이 누나랑 윤키형이랑 사귀니까. 우리 축하해줘요. △성원아~ 미애랑 사귀는 것 축하해.

수고하셨습니다

△42기 9개의 펄통들!! 아유~생새나...수고 많았다! -ppuzic △불교대 학생회(미희누나, 영철이형)!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5대 사과대 학생회를 이끌었던 서영건 학생회장 그동안 고생 많았다. 몸건강, 정

연방글

축하합니다

△사과대 학생회 오원기, 김종연 열심히해. △역교과 임용고시 보는 4학년들! 300대1에 겁먹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정원아 시험공부 열심히해. -PYO △ 법95' 박상대 선배 우리 열심히 합시다. 보야 먹었으니 더욱더 열심히! -계산고시학사

그리고...

△영철이형, 민성이형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석 △역사교육과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세요! △원재야 내가 사랑하는게 알지? -환수 △근대 가기 전에 한 건! 꼭 울려라. 영석 아~ -01누님들

연심글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경영학과 야구부 동국기 추계 리그 준우승을 축하합니다. -감독 심 △창진이형! 한숨이형 축하드리구요!! 파티팅!! -함께 만드는 관광천하 △창해정 범우님과 박아린 범우님의 금볼의 의장 당선 축하합니다. △유진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나의 벗 19 △현정·화경 생일 축하해. -현주 & 재은

수고하셨습니다

△3학기 4학년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윤 J형 -Y.J △자대 빙구야 한자검증시험 친다고 수고했어. H양과도 잘 필꺼야!! -정·산 초참 △미술학부 1학년 '딱내전' 준비한다고 수고 했구요, 한해동안 고생했어요! △형진우, 혼자서 잘 수고했다.

열심히 합시다

△정수야 파울볼 줘느라 고생이 많다 -이승엽 △99학년 국문학과 이지선, 상재, 호야, 도행 시험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안락한 신문사 분위기~ 좋코~!! 형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창규 △성원아 너무 자학하지 마라!! 그거 아냐? 지구는 너를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너를 위해 뜨는 거? △영훈이 형! 밥 혼자 먹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우유 잘먹었어. △기말~ 열심히 하렵니다.

그리고...

△김호진!!! 좀 씻고 다녀라~! 제발... please. △우리 모두 realist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Guevara △세환이 오빠, 소개팅 무기한으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 빨리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정환아, 지현아! 나중에 꼭 보자.

서울캠

	월(11/25)	화(11/26)	수(11/27)	목(11/28)	금(11/29)
동국관	참치우거지탕 (1500) 닭조림 (1500) 너비아니백반 (1500)	양지탕 (1500) 지장밥 (1500) 피자돈가스 (1500)	김치수제비 (1300) 치킨볶음밥 (1500) 제육볶음 (1500)	소고기배추국백반 (1500) 오징어떡볶음 (1500) 사골곰탕 (1500)	찜빵국밥 (1500) 불고기 (1500) 회덮밥 (1500)
상록원	순두부찌개 (1300) 해물칠리볶음밥 (1500) 닭도리탕 (1500)	갈비탕 (1500) 오징어가스 (1500) 백반 (1500)	장터국밥 (1500) 모듬장조림 (1500) 나물비빔밥 (1300)	어묵우동 (1500) 소고기비빔밥 (1500) 골뱅이소면우침 (1500)	햄스터찌개 (1500) 키레라이스 (1500) 돈육뽕콩강정 (1500)
교직원	콩나물국밥 (3000) 돈갈비찜 (3200)	감자탕 (3200) 해물자장덮밥 (3000)	돼비빔불고기 (3200) 냉이국백반 (3000)	곰창전골 (3200) 푸꾸이볶음 (3200)	우렁чин장찌개 (3000) 삼치구이백반 (3000)

경주캠

	월(11/25)	화(11/26)	수(11/27)	목(11/28)	금(11/29)
학생회관	유부원장국 (1300) 삼색볶음밥 (1600) 자장덮밥 (1700) 곰탕 (1800)	사골무채국 (1300) 햄이채볶음밥 (1600) 제육볶음덮밥 (1600) 곰탕 (1800)	간세우시금치국 (1300) 참치아채비빔밥 (1500) 산채볶음밥 (1600) 갈비탕 (1800)	열무원장국 (1300) 오우라이스 (1600) 낙지볶음덮밥 (1600) 설렁탕 (1800)	얼기리국 (1300) 키레라이스 (1500) 양송이볶음밥 (1600) 곰탕 (1800)

영화 홈페이지, 일회성 부록에서 필수 요소로

다양한 콘텐츠·디자인으로 방문자 급증 ...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로 소통공간 돼야

영화 '취화선'은 제5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거머쥐었을 뿐 아니라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www.chihwasoon.com) 역시 제49회 칸국제광고제의 필름이벤트프로모션 부문에서는 사자상을 차지했다.

'취화선'의 홈페이지는 백지의 모니터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과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는 효과 등을 통해 영화의 주소재인 한국화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영화 홈페이지가 영화의 '부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일부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 홈페이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홈페이지 제작수준·비용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보급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특히 최근 선보이고 있는 영화들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콘텐츠와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연애소설'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육필로 쓰여진 편지를 볼 수 있어 방문자들로부터 하여금 연애편지를 받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 개봉한 영화 '공복특수'는 영화의 주된 공간인 감옥을 결합하는 느낌이 들도록 커다란 감옥 스틸사진을 이용했으며 커뮤니티 공간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영화배우들을 주인공으로 제작한 게임, 편집된 장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있다.

영화 홈페이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2분 가량의 예고편을 언제든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획의도와 제작과정 등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화 홈페이지들은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외국과 다르게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보다 시각적인 디자인만으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이것은 흥행 여부에 있어 작품성보다 주연배우나 감독의 이름이 더 크게 작용하는 우리 영화계 실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는 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의견이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가나 운영 도중에 폐쇄를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흥행을 의식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관심 끌기에 초점을 맞춘 홈페이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영화 종영과 동시에 운영을 중단하는 것 역시 영화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영화 종류에 상관없이 디자인과 구성이 비슷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영화평론가 한승룡 씨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콘텐츠에서 벗어나 영화의 특성에 따라 색다른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화 홈페이지를 단발적인 홍보성 도구로만 인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영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영화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 경쟁 또한 영화의 관객 수 경쟁만큼 치열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영화의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홍보물에서 얻을 수 없는 '알짜배기 정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화 홈페이지가 영화의 수용자인

관객과 공급자간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영화의 질적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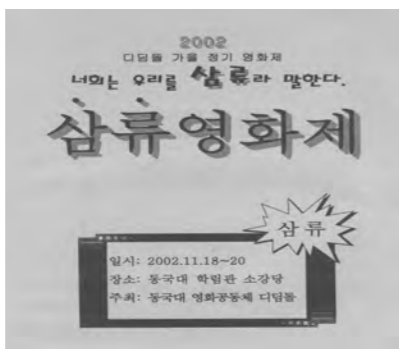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삼류? 영화보기의 세가지 재미

폭력·코믹·섹스 주제로 외면 받아온 영화 재조명해

얼마 전 학내 곳곳에 붙은 '너희가 삼류를 아느냐'라는 포스터가 화제를 모았다. 학간에는 모 이동통신업체의 티저광고가 아니냐는 의견부터 몇몇 학생들의 장난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3일 후 '너희는 우리를 삼류라 말한다'라는 문구로 영화상영일정과 함께 다시 나타난 포스터는 다른 아닌 한 영화 동아리의 가을 정기영화제를 알리고 있었다.



양한 문화 공존의 새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삼류영화제의 문을 연 '폭력'에서는 '복수는 나의 것' '엑스페리먼트' '메트로폴리스'를 상영해 폭력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위터보이즈'와 '해피길모어' '오스틴 파워3' '골든벨버'의 '코믹'에서는 웃음의 요소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진행된 '섹스'는 '휴먼네이처' '탈레나'를 통해 섹스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영화제 진행상 특이한 것은 상영작에 관한 동아리 회원들의 영화감상문을 모아 문집을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영화계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보여주기식' 팸플릿이 아닌, 영화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메모장'으로 말이다.

이와 관련해 디딤들의 이보람(국문2)은 "상영작들은 몇 번의 회의를 거쳐 각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들을 선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외면 받았던 영화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의 호응 속에 이루어진 영화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영화보기의 재미는 물론 주제별로 각 시대상과 문화까지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삼류'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학생다운 재치를 덧붙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삼류영화제는 충분히 일류라 불릴만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문화단신

2002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2002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내일(26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체 실시 후 늘어난 지역축제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2002년 지역축제를 시민적·문화적 관점에서 평가, 문제점 점검 및 대안 모색을 주요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 일정은 △올 한해 지역축제에 대한 개괄적 평가·토론(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무국장)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김규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지역축제 평가방법론의 모색·이훈(한양대 관광학) 등이 발제를 맡아 각 주제를 발표한다.

문의 773-7707

한국사학과 리얼리즘 전

1950년대부터 활동해 온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한국사학과 리얼리즘 전'이 다음달 2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미술관 소갤러리에서 열린다.

김한용·손규문·안종철 등 리얼리즘 분야에서 주제의식과 시대정신을 보여준 '신신회' 출신 사진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해방과 한국전쟁 공간에서의 인간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한편 사진전과 함께 사진집 '한국사학과 리얼리즘'도 발매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문의 760-4730

학부(과)·동아리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목적** : 참신하고 진취적인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강의실 내에서의 이론 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신청자격** : 학부(과) 및 동아리의 기존 및 신규 사회봉사 프로그램
- 봉사회동 기간** : 2002년 12월 ~ 2003년 2월
- 지원 예산** :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및 물품 구입비
 - ① 지원금 결정은 심사등급(A,B,C,D)에 따라 최하등급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차등 지급
 - ② 집중지원 대상 프로그램: 전공관련 사회봉사활동을 현장학습으로서성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집중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
 - ※ 지도교수 및 조교가 참여·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 (일회성 또는 행사성 프로그램은 지양)
- 선 정** : 동국참사랑봉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① 심사 기준 : 전공학문 연계성, 참여도, 파급효과성 등
 - ② 활동 인원 : 7인 이상(지도교수 및 조교 참여시 우선 지원)
 - ③ 기 간 : 3개월 이상 (주간, 월별 행사도 가능)
 - ④ 봉사대상 단체 :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적 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 ⑤ 봉사내용 : 비대면형 업무(아르바이트 성격 아님)
- 연계(후속)지원** :
 - ① 학점부여(이수구분): 자유선택, 33시간이상 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
 - ② 우수 봉사자는 훈장수여 및 사회봉사 장학금 지원
 - ③ 2003학년도 해외봉사단 파견시 우선 선발
 - ④ 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은 사례집으로 발간
- 신청기간** : 2002년 12월 3일(월) ~ 12월 6일(금)
-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 (동국참사랑봉사단 소정양식 1부)
 - ② 봉사활동 계획서 (동국참사랑봉사단 소정양식 1부)
- 접수방법** : 학생처 동국참사랑봉사단에 제출
 - ※ 문의처 : 동국참사랑봉사단 TEL) 2260 - 3049

2002학년도 겨울·봄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 (Korean Program)

학기	등록마감	기간	수업료
2002 겨울	2002. 11. 22	2002. 12. 16 ~ 2003. 2. 28	₩900,000 (교재포함)
2003 봄	2003. 2. 28	2003. 3. 24 ~ 2003.6. 3	₩900,000 (여형,교재비 별도)

분반 시험(Placement Test) : 10:00 AM on Dec. 10(Tue), 2002 / March 18, 2003
휴일 : 2002. 12.25(성탄절) / 2003. 1. 1 / 2003. 1. 29 - 2. 3 (설날연휴) / 2003. 5.5(어린이날) / 2003. 5. 8 (어버이날)

- ① **한국어 집중 과정(봄, 여름, 가을, 겨울 10주)**
 - 월, 화, 목, 금 오전 9:00~오후 1:00 / 수·목·금 문화체험 (주당 18시간)
 -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사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 ② **한국어 이간 과정(봄, 여름, 가을, 겨울 10주)** - 급별 7인 이상 경우에만 개설
 - 월, 수, 금 오후 6:30~8:30(주당 6시간) 체류 외국인 및 교포 대상으로 오전의 정규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대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학생비자와는 관계없음.
 - 수업료 ₩350,000(교재비별도)
- ※ **지원료** : ₩30,000(환불되지 않으며, 처음 지원하는 학생만 받)
- ※ **동국대학교 재학생은 10% 할인**
- ※ **환불규정** : 분반시험(2002. 12. 10/ 2003. 3. 18)이 있기 2주전 환불 요청 시는 전액 환불됩니다. 이후 학기시작(2002. 12. 16/ 2003. 3. 24) 전 환불 요청 시에는 수업료의 90%, 수업시작후 일주일 동안에는 70%만 환불되며, 이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첫 주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의 등록은 자동 취소됩니다.
- ※ **학점유치** : 다음학기로의 연기는 수업 시작 후 첫째주까 지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인기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과 살아있는 경험을 주고자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1.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12명 정도의 소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2. 친화적이고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향상을 도와줄 것입니다.
3. 사할음식과 사할문화 등과 같은 동국대학교 한국어과정만의 독특한 활동과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일상 회화 실습 및 북독과 한국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Conversation Partner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어에 제일 오래된 학교인 동국대학교의 학습력 문화적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 비 영어권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의 회화 수업료 30% 할인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7. 언어 능력 평가와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Tel: +82-2-2260-3471 ~ 1 Fax: +82-2-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URL: http://today.dgu.ac.kr

중앙도서관이전에따른이용안내

신속 중앙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료실을 신관으로 이전할 예정인 바, 이전기간 중에는 부득이 자료실을 휴실 하고 자료 이용을 정면 중지하게 되어,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전기간 중 도서관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도서 대출 취소 및 기간 조정** :
가. 신청기간 : 2002. 11. 25(월) ~ 12. 7(토) (13일간)
나. 조정비용

대상	연령 (대출책수/반납기간)	변경 (대출책수/반납기간)
학부생	5책 / 14일	10책 / 50일
대학원생	10책 / 30일	20책 / 50일

- ※ 방학기간 중 이용할 도서관 위 기간 중에 미리 대출하기 바랍니다.
- 2. **자료실 휴실**
가. 휴실기간 : 2002. 12. 9(월) ~ 2003. 1. 11(토) (34일간)
나. 일반입장권은 편종자랑 없음.
다. 작업 진행에 따라 휴실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라. 휴실기간 중에도 민원 및 반납 업무는 정상적으로 실시하나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2003년 1월 13일 이후 반납을 권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2260-3454, 3457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2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1. 성적처리 및 제출 기한 : 2002. 12. 9(월) ~ 20(금), 17시까지
2. 성적 공시 : 12. 14(토) ~ 12. 9(월)~13(금)까지 일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 처리후 바로 공시됨.
3. 성적 조정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조정 가능 기간은 교·강사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담당교수별 개별 공지 예정)
(2) 성적처리 및 제출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4. 성적표 및 E-mail 성적 발송 : 12. 30(일) 예정

교무처

교직원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가. 교직원과정 이수예정자 있는 학과(전공)에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생 (3학기 조기복학자도 신청가능)
나. 평점평균 2.5 이상
2. **신청 및 선발시기**
구분 신청시기 선발시기 비 고
1차 2002.11.25 - 11.29 2003.1.30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됨.
2차 2003.2.3 - 2003.2.7 2003.2.24 1차 선발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 전과생을 포함하여 추가 선발 가능.
3. **접수처** :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4. **신청서류** : 교직원과정수신청서 (소정양식 : 학교홈페이지 교직원과정 게시판에 있음)
5. **선발기준 및 방식**
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학과(전공) 및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교직원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선발인원은 학교홈페이지 교직원과정 게시판 참조)
나. 선발주체 : 학과주요인수
다. 1.2학년 누계성적(90%)과 교직원성·적성을 반영한 면접(10%)으로 선발한다.
6. **교직원과정 이수절차** : 해당학년도 교직이수기대 참조
7. **참고사항**
가. 교직원과정 이수자 선발된 학생이 전과하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학위복수전공 신청으로 대체하므로 학위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합니다.
8. **문의** : 사법대 교학과 ☎ 2260-3751)

사범대학

클릭! 달나라 딸세포
(http://dalara.jinbo.net)



노래방, 오락실, 휴먼실, 식당, 화장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성전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에도 여성전용이라 불릴만한 공간이 있을까.

이름부터 독특한 '달나라 딸세포' (http://dalara.jinbo.net)는 이 질문의 명쾌한 해답이다. 여기서 딸세포란 흠여져 있어도 계속해서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의미한다.

'달나라 딸세포'이라는 달력으로 방문자를 맞이하는 이 사이트는 여성들이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다양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여성전용 수다떨기 게시판은 여성이기에 겪을 수 밖에 없는 소중한 일부터 성폭력 사건까지 방문자들의 경험담이 주를 이룬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글에 답글을 쓰는 것이 활성화돼 있어 여성들의 고민상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성화 게시판에서는 여성화 관련 세미나, 여성화 서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전문가 혹은 운영자들이 상세한 답변을 해준다.

또한 자료실에서는 짧은 페미니스트 모임 '해그림'의 소설과 그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소리 코너에서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공하며 여성단체, 여성웹진 등 여성 관련 사이트도 링크돼 있어 편리하다.

달나라 딸세포가 여는 여성 관련 사이트와 다른 것은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딸세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누구나 수다떨기'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업데이트에도 신경을 써 방문자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의 열린 신문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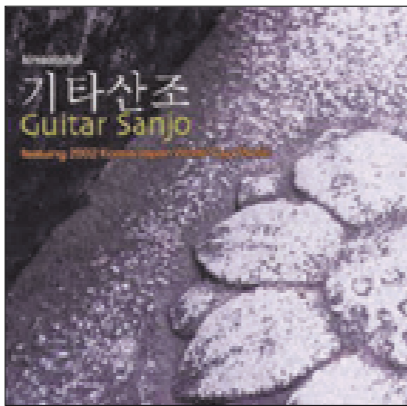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매체비평

음반 편

기타산조

“전통과 현대의 퓨전음악
세대 초월해 대중과 악수하기”



서양악기인 기타로 산조를 연주한 김수철의 기타산조.

산조란 한국 전통음악의 한 장르로 연주자의 공력과 독창적인 음악성이 발휘되는 기악 독주곡이다. 이는 선율과 장단

의 조화로 전개되며 긴장과 이완, 즉 죄고 푸는 맛으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우리 음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준높은 음악 활동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많은 훌륭한 음악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서양문화가 들어오면서 전통교육이 쇠약해지고 새로운 문화 또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러나 수많은 연주자, 작곡가, 음악학자들의 노력으로 연주기량이 향상되고 전통음악의 가치와 멋·본질이 무엇인지 밝혀려는 노력이 이어진 결과 올바른 전통문화가 자리잡고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곡들이 작곡·연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타로 산조를 연주, 서양악기 산조를 연주, 가야금으로 비발디 사계를 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음악이 과연 연주회에서 환호를 받을까.

전통음악이 서양화되는 것은 겉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등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는 지금, 퓨전음악의 역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조라는 음악의 장르는 1890년경 김창조(1856~1919)에 의해 가야금으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정악 계통으로 쓰이다 가야금 주법에서 산조 음악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오늘날까지 화려한 새로운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으나 당시는 파격적인 행위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비슷한 경우로 창작곡악이 처음 발표될 당시도 비난과 찬사의 공존 속에 많은 곡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았다.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려질 만큼 표현이 다양하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악기이다. 전통 음악의 쇠퇴기에 우리

대중음악의 큰 자리를 차지한 악기가 기타이므로 기타와 전통음악의 예사롭지 않은 인연의 끈을 김수철씨가 연결시킨 것은 새로운 문화의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다. 가수 김수철 씨는 우리의 정서, 우리네 삶이 우리의 가락으로 표현된 음악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고 더불어 나아가서 세계인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의 소리를 전통 국악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젊은 세대나 세계인이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서양의 전기기타를 사용하여 우리 소리의 매력과 감동을 표현하고자 한 음반이 '기타산조'라고 한다. 이 음반은 전통음악으로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작곡가의 노

력이 돋보인다. 음반에는 장구, 대금, 가야금의 앙상블·기타 솔로 산조 4곡,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곡과 조추첨 음악 등 전통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음악들을 담았다. 또한 본래 산조는 길이가 20~40분인 것과 다르게 2~4분대로 짧게 작곡해 지루함을 없앴다. 사실 우리 소리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서양 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렇기에 김수철 씨의 기타산조는 우리 음악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소리에 대한 흥미와 감동을 조금이라도 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바란다. 윤소희 불교문화대 국악과 교수

고루한 문화정책, 새 옷을 입어라

영화 - 정재형(영화영상학) 교수



DJ정권이 그 어떤 정권에 비해서 첨단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은 일단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와 축소지향의 행정을 추구하던 DJ정권이 진행할수록 점점 더 산만하고 비대한 행정조직으로 변모해갔다

는 사실은 모순적인 결과의 한 단면이다. 그 예로 문화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부처간의 중복성을 거론할 수 있겠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콘텐츠 사업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두 부처간에 동시에 중복되었고, 두 기관의 산하기구인 콘텐츠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애니메이션 진흥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거의 같은 성격을 갖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혼란한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산만함은 그만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무게중심과 장기적 계획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후 정권이 개선해야 할 첫 번째 의무사항으로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문화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행정조직의 단일화는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중음악 - 임진모(대중음악평론가)



다른 문화분야의 경우 정부정책과 지원이 절실하겠지만 솔직히 대중음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놔두는 것이 최선 이랄까. DJ정부에서 시행 중인 현 각종 음악콘텐츠 진흥사업을 유지하고 완

성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다만 대중음악이 방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연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 그것도 정책이 아닌 지원 수준이여야 한다. 이것이 대중음악이 그간 미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류와 일본진출로 고무된 분위기를 제고하는 가장 결정적인 출발선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테면 공연을 활발하게 진행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라이브 공연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대중음악의 개방은 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TV개방은 여론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본이 가창에만 전념해방은 이제 겁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음악계의 중론이다. 덧붙여 현 정부가 대중문화를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했다면 차기 정부는 산업보다는 이미지 즉 공연예술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문화분야의 자율적 활성화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민간기부의 자발적 토양 갖춰져야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은 과거 정권의 문화정책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예산의 급속한 증가이다. 2003년도 문화분야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1.13%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 문화예산이 0.58%에 불과했고, 문화예산이 가장 많다는 프랑스가 0.97% 정도이니 매우 급속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기업과 민간의 기부를 포함한 문화예산 전반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 시설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가령 도서관의 경우 인구 11만명당 1관, 인구 1인당 장서수 0.56권으로 OECD 국가에 고사하고 동남아시아권 국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현재 1%대 문화예산은 그리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차기 정권에서도 문화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은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그러나 문화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을 단지 국가예산의 확충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기업의 문화분야에 대한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분야의 자율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부의 자발적 토양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해 문화소비층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소비 정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척도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기도 하다. 가령 '사당티켓'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이나 영화,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기초예술이라 할 수 있는 순수문화예술분야 즉 시, 소설, 연극, 시나리오, 음악, 미술 등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며, 문화의 발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화산업과 순수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음반, 게임, 출판문화 등 문화상품 유통 구조의 근대성을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의 정착 그리고 공동제작시설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집중 육성 등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문화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문화분야 개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오는 200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WTO 협상이 그것인데,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연합과 캐나다 그리

고 유럽의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무역에서의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며 '시장각 서비스' 분야의 양허요청안을 내지도 말고 받지도 않겠다는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문화부장관들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일반적인 국제무역협상과는 다른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시장각분야 서비스'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 물론 미국 등의 국가가 우리에게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음 - 향후 유럽연합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25%선을 유지하던 자국 영화 시장점유율이 5%대로 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시장각분야 서비스' 협정이 미국 등의 의도대로 체결된다면 우리 문화산업은 급진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화정책의 수립, 예산의 배분, 지원기구나 기반시설 운영에서 '지원'은 하위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전시장 사업이 아닌 현장 전문인 중심의 문화정책, 주민 속의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확고히 견지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기택 문화평론가

연극 - 신영섭(연극학) 교수



현재 우리 문화예술의 현장은 지나친 경제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연예술의 경우 순수창작공연의 위축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문화 인프라 구축의 효율 문제는 차기정부의 공연예술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선결

과제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로가 공연예술의 인프라로서의 순기능을 담당하도록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 공연예술진흥위원회의 설립이다. 현재 문예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연예술분야 업무를 독립시켜, 발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초·중등 교과과정엔 연극교과목 채택이다. 공연예술의 주인이 될 학생들의 교육에 문화적 컨텐트의 다양한 수용과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넷째 공연예술수용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이다. 관객부족 문제는 공연예술창작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에게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객에 대한 지원과 배려 부족이 근본적이다. 다섯째 공연예술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다. 이 밖에도 여타의 공연예술정책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위의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문화 - 정기훈(정보관리3)



대학이 문화를 생산해낸 곳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곳으로 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듯 하다. 특유의 건강함으로 사회의 문화지형을 선도해서 일구어내던 대학문화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다만 대량의 문화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진다.

IMF이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논리가 대학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가능해진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상품화되어 떨어지는 문화상품은 도태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며 그 창조적 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기만적이다. 대학이 그 특유의 건강함으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학문화를 이야기하고 그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어렵고 배부른 낭만쯤으로 치부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문화의 세기, 21세기란다. 다른말로 문화가 '돈되는' 세기라 할 수 있을텐데, 서울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신에 즈음하여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는 주제로 정책의, 토론의 등을 벌이고 있는데 적극 동참하고픈 심정이다. 70년대 말 민족문화 복원운동처럼 다시금 대학이 창조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생산의 주체로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문화대통령을 원한다.

김도영 대학부장 circus@dongguk.edu



메아리

가족시네마

▲영화촬영장 실내세트.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찮다. 보아 하니 어린 아들을 꾸짖고 있는 중이다. "어쩌다 창문을 깬거?" "형이 공을 못 받았잖아. 난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나 형은 묵묵부답. 아빠의 표정이 굳어지고 분위기는 냉랭하다. 다른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 얼마 앞 "어쨌든 네가 던진 공에 창문이 깨졌잖아. 너에게도 책임이 있어." 이 때 감독, "컷! 이젠 가족영화야.

다 같은 식구끼리 그렇게 냉정하면 안되지. 다시 갑시다."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기소된 미군 2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우리 국민들의 고조된 반미여론을 인식한 듯 주한미군은 한국인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했지만, 미군법정의 맥 빠진 재판 내용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커지게 했다. 결국 사건 초기 "누구의 과실도 없다"고 논평을 냈던 미군의 오만한 자세가 법원의 판결로 정당화된 셈이다. ▲미군 증언만을 토대로 미군 배심원들이 무죄판결을 내린 미군법정의 모습은 '우리식구 꾸짖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통신문자의 이상유무와 관련해 결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증거까지 고장이 없었다는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대 중대장

증인 신청도 거부됐다. 재판에 참석한 우리 국민들은 한편의 '가족영화'에 또 다시 우당탕탕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미군 마크 워커 병장은 "주한미군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가족을 잃은 두 소녀의 유족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줄곧 이번 사건의 해결보다 자국민 보호에만 열중하는 '가족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다. 무죄판결 이후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막

기 위해서는 "소파협정 재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 불평등하게 정립된 두 나라의 관계가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대신을 앞둔 각 정당의 후보들도 소파협정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들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도영 대학부장 circus@dongguk.edu